

수신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발신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학과 교수)
문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윤철한 팀장, 정택수 간사 / 02-766-5624, 010-7584-0755)
일자	2018. 7. 17.(화)
제목	[보도자료] GMO 가공식품 수입 현황 실태조사 결과 (총 3매)

코스트코, 버거킹, 이마트 등이 GMO가공식품 많이 수입하는 업체로 드러나

- GMO가공식품 5년간 총 15만6천톤 수입, 5년 전에 비해 473% 증가

경실련은 최근 5년(2013-2017)간 GMO가공식품 수입 현황을 식약처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자료 확인결과, 최근 5년간 수입된 GMO가공식품은 총 156,270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GMO가공식품 최대수입업체는 (주)코스트코 코리아로 지난 5년간 총 19,042톤을 수입하였으며, 다음으로 주식회사 비케이알, (주)오성물산코리아, (주)이마트, (주)모노링크 등의 순이었다. GMO가공식품의 수입량은 GMO농산물에 비해 적었지만, 증가율은 훨씬 높았다. 2017년 GMO가공식품 수입량은 2013년에 비해 무려 473%나 폭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GMO농산물 수입량 증가율인 25%보다 훨씬 높다.

GMO 가공식품·농산물 수입량(kg)

연도	GMO가공식품 수입량 (A)	2013년 대비 증가율(%)	식용 GMO농산물 수입량 (B)	2013년 대비 증가율(%)	GMO가공식품· 식용 GMO농산물 합계
					(A+B)
2013	13,794,068	-	1,764,178,000	-	1,777,972,068
2014	18,032,692	31	2,087,940,000	18	2,105,972,692
2015	19,026,382	38	2,181,049,000	24	2,200,075,382
2016	26,426,116	92	2,114,366,899	20	2,140,793,015
2017	78,990,903	473	2,212,751,854	25	2,291,742,757
계	156,270,162	-	10,360,285,753		10,516,555,914

2017년부터 GMO가공식품 수입량이 급증한 것은 동년 2월부터 시행된 GMO관련 표시기준 개정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전에는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원재료가 함량순위 기준으로 5순위 내에 들지 않으면 GMO표시를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표시기준에서는 순위에 상관없이 모두 GMO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는 그 동안 잘못된 GMO 표시제도로 인하여 GMO가공식품의 수입량이 실제 수입량보다 매우 적게 계상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여전히 GMO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 GMO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다. 소비자들이 GMO가공식품 수입량 통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수입된 GMO농산물과 GMO가공식품을 합산한 총량은 무려 10,516,555톤에 이른다. 식용 GMO농산물과 GMO가공식품 모두 수입량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볼 때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GMO 식품의 양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수입량 증가에 비례하여 수입업체도 크게 증가했다. 2013년 344개였던 수입업체는 2014년 399개, 2015년 487개, 2016년 503개, 2017년 938개로 지난 5년간 약 2.7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수입량에서 상위 5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내외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상위 5개 업체별 GMO가공식품 수입량(kg)

업체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주)코스트코 코리아	2,776,590	4,042,031	3,360,464	3,293,145	5,570,291	19,042,521
주식회사 비케이알	762,185	1,997,441	1,637,495	1,987,241	2,338,097	8,722,459
(주)오성물산 코리아	-	-	-	-	8,298,692	8,298,692
(주)이마트	118,276	209,430	354,116	2,037,583	2,801,953	5,521,358
(주)모노링크	334,241	469,493	562,537	735,932	2,037,704	4,139,907
소계	3,991,292	6,718,395	5,914,612	8,053,901	21,046,737	45,724,937
수입량 대비 5대 업체 비중	29%	37%	31%	30%	27%	29%

업체별로는 상위 5개 업체가 지난 5년간 GMO 가공식품 전체 수입량의 약 29%인 총 45,724톤을 수입했다. (주)코스트코 코리아가 5년간 19,043톤의 GMO가공식품을 수입하여 최대 수입업체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패스트푸드 브랜드 ‘버거킹’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비케이알**이 5년간 총 8,722톤을 수입했다.

3번째로 GMO가공식품을 많이 수입하는 업체는 과자류 등 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주)오성물산코리아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GMO가공식품 수입업체로는 2017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무려 8,298톤을 수입하였는데 5년간 가장 많은 수입량이다. 2017년에는 (주)오성물산코리아 외에도 GMO가공식품 수입업체로 처음 등장한 업체들이 많은데, 참맛식품이 2,378톤으로 수입량 4위, 해마로푸드서비스가 2,028톤으로 수입량 9위였다.

대형마트 업체인 (주)이마트도 5년간 총 5,521톤을 수입하여 4번째로 GMO가공식품을 많이 수입했고, 일본 수입 식품·식자재 전문회사인 (주)모노링크는 5년간 총 4,139톤을 수입하여 5번째로 나타냈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GMO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토록 많은 양의 GMO 가공식품과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음에도 GMO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나와 우리 가족이 먹는 식품에 GMO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욕구는 지극히 당연하며,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GMO 사용 시 예외 없이 GMO를 표기하는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 끝.

별첨

GMO 가공식품 연도별 수입량 수입 건수·업체 수

연도	수입량	증가율	건수	증가율	업체 수	증가율
2013	13,794,068	-	4,390	-	344	-
2014	18,032,692	30.7	5,423	23.5	399	16.0
2015	19,026,382	5.5	6,025	11.1	487	22.1
2016	26,426,116	38.9	6,446	7.0	503	3.3
2017	78,990,903	198.9	18,452	186.3	938	86.5
계	156,270,162		40,736		-	

업체별 GMO 가공식품 수입 건수 및 중량 (2013~2017)

업체명	건수	중량(kg)
(주)코스트코코리아	2,837	19,042,521
주식회사 비케이알	329	8,722,459
(주)오성물산코리아	94	8,298,692
(주)이마트	431	5,521,358
(주)모노링크	2,977	4,139,907
(주)은화식품	544	3,799,989
(주)상기종합식품	71	3,320,040
(주)금강엔터프라이즈	121	3,193,779
코리아후드서비스	356	3,176,743
디케이식품(주)	244	2,635,927

2017년 업체별 GMO 가공식품 수입 건수 및 중량

업체명	건수	중량(kg)
(주)오성물산코리아	94	8,298,692
(주)코스트코코리아	914	5,570,291
(주)이마트	236	2,801,953
참맛식품	248	2,373,200
주식회사 비케이알	83	2,338,097
대상(주)	10	2,241,400
코리아후드서비스	215	2,237,211
(주)모노링크	1,118	2,037,704
해마로푸드서비스(주)	63	2,028,142
에이치아이산업(주)	187	1,963,532